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87
----------	------

발의연월일 : 2024. 9. 27.

발 의 자 : 박성민 · 강민국 · 김대식
안상훈 · 박정하 · 최형두
서일준 · 김상욱 · 이현승
김정재 · 구자근 · 박성훈
강승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PG”라 함)차량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휴업 · 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유소의 경우 셀프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업자는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 · 사무원 · 세차원 등 충전소에 고용된 직원은 비자발적 실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을 비롯한 독일 · 이탈리아 · 폴란드 등 유럽 국가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21년부터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여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였고, 셀프충전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와 편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업·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LPG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져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u>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u>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져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u> 2. <u>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u> 3. <u>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